

약정상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상인 사이에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조항이 삽입된다. 이 때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로서 주로 포함되는 문구가 ‘계약당사자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계약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선고신청이 있는 경우’다. 특히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선고신청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계약당사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상 형성되는 채권, 채무관계를 성실히 이행하리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기에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같은 조항을 삽입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선고신청이 있으면 언제든 약정에 의해 그 상대방이 해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계약이 아직

전부 이행되지 않은 ‘미이행 쌍무계약’이고, ▲계약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아무리 약정상 해제권에 대한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해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채무자로 하여금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주로 대표이사)에게 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관리인은 회생을 위해 영업의 계속에 필요한 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해선 계약 이행을 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계약상 도산해제조항이 있더라도 해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물론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판결). 예를 들어 계약상 약정된 대금의 수준이나 그 내용이 계약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하고,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그 시기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의 이행을 강요할 경우 계약 상대방 또한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영업에 필요하지 않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이행을 택하는 경우라면 계약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이 발생함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 민사적 상식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도산절차 진행으로부터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보호하려면 각종 담보권 설정이나 계약상 권리,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계약서 작성시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성장률 바닥, 길바닥엔 폐업



김지수첩

김 연 세
(정책사회부)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곳곳에서 흘러나온 지 꽤 됐다. 코로나19가 엔데믹화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늘어난 소비는 말 그대로 ‘반짝’ 특수에 불과했다. 건설 경기, 자영업 경기는 지금 바닥이다. 마한가지로, 당시 무섭게 치솟던 코스피 지수는 본연의 약세장을 되찾았다.

주식이든 실물 경제든 바닥을 치면 반등하는 게 세상이치인데 어둠의 터널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2분기에 역성장(-0.2%)하면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꼴찌를 기록했다. G20 협의체 평균 +0.7%와 비교해

매우 초라한 성적이다. 미국·중국·일본의 GDP도 모두 평균과 같이 직전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0.5%에 달하며 한국 수치를 훌쩍 상회했다.

한국은 3분기에도 GDP가 고작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분기의 마이너스를 감안하면 제자리도 못 찾은 것이다. 한국은행이 당초 제시한 예측치 +0.5%는 부끄러울 정도로 빗나갔다. 기획재정부 역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 바 있다. 민간소비 등의 부진한 내수를 수출이 상쇄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달 하순 국감장에서 기업들의 수출물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품의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 역대 가장 긴 기간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승용차 판매는 올해 1분기(-8.4%), 2분기(-13.2%), 3분기(-1.4%) 등으로 크게 위축돼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2022년 2분기(-4.5%)부터 올해 3분기(-3.3%)까지 10개 분기에 걸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요즘 시내 길을 걷다 보면 ‘폐업’ 문구를 내붙인 점포를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음식점에는, 특히 저녁 시간에는 텅빈 자리가 많아 행하다. 마트도 소고기 등 할인 행사 코너를 빼면 이상하리만치 한산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올해 2.6%)를 낮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향 조정한다는 건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인정한다는 방증이다. 근데 단순히 숫자 바꾸는 건 우선순위가 아닐 터. 금리 정책, 건설 부양책 등 뭐든 행함이 시급해 보인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4일 (음 10월 4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많으니 겸손하게 대처. 48년생 우물가에서 송송 찾지 말고 순서대로 움직여야. 60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72년생 봄날의 꽃보다 아름다운 자신. 84년생 아침부터 흐려지기 쉬운 날.



소

3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다. 4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해야 하는 하루 되길. 61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73년생 꿈을 얻으려면 발통을 손질해서 놓아야 할 것. 85년생 나누는 행동이 나를 높여준다.



호랑이

38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면 그만. 50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쉬운 법. 62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74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지출도 따르게 되니 신중히. 86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토끼

39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51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재도전이 필요하다. 63년생 그물에 잡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75년생 연인을 만나니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듯 마음도 봄. 87년생 외출 시 음주를 주의해야.



염

40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52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나 불청객이다. 64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물기는 더 난처한 하루. 76년생 이직하려는 만만치 않으니 더 노력. 88년생 바깥 활동을 할 때 지출관리에 힘써라.



뱀

41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말자. 53년생 후배가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프다. 65년생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천년생물은 가는 사랑도 있다. 77년생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89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말

42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54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66년생 시간의 운로는 나이 들수록 단순하지가 않다. 78년생 온고지신(溫故知新)은 행운을 부른다. 90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손해를 입게 된다.



양

43년생 일이 너무 잘 풀리니 서류정리를 꼼꼼하게. 55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오늘은 거칠 것 없다. 67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다. 79년생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91년생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좋은 일이다.



원숭이

44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 날. 56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하기 나름이니 신중하게. 68년생 말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 80년생 창업의 실현 시기를 잘 찾아서 발전시키도록. 92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귀한 정보를 얻는다.



닭

45년생 믿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 57년생 가야 할 길은 만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69년생 되는 일이 없어도 의지조차 무력해져서야. 8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93년생 한여름에 솜옷이 생각나니 건강주의.



개

46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58년생 뱀파이의 거래가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70년생 사랑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수록 오리무중이다. 82년생 평범하다고 재빨리 못하다고 할 수도 없을 듯. 94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돼지

47년생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59년생 마른 눈에 물이 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71년생 마음이 울적하지만 친구가 위로. 83년생 중심을 잡고 일 처리를 해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95년생 나름의 징크스는 누구에게나 있으니 걱정보다는.

김상회의四季

리더의 자질, 경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K씨가 상담을 왔다. 불경기에도 나름 안정적인 매출을 해온 회사인데 아들이 대학 졸업 후 경영수업을 시킬만한 운세이며 자질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 회사의 대소결정이 있을 때마다 미미하게나마 조언을 해주었던 터라 회사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K씨의 훌륭한 점은 직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타입이다. 리더의 자질에 관하여 많은 주장이 있다. 어떤 인물이 리더가 되는냐에 따라 그 조직과 사회 또는 나라가 변형하기도 하지만 패망하기도 하고 한다. 성공과 실패의 키를 쥐고 있으니 선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뛰어난 리더는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이 얼굴에 바로바로 드러나는 사람은 하수이다. 포커페이스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리더는 외롭다. 자신의 진솔함을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빠도 웃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할 때까지는 신념과 소신을 고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모든 사관생도는 과제로 범선 운항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담당하는 선장은 방향기에서 손을 내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생도들에게 일체의 조종을 맡긴다. 운항실습인 것이다. 일단 운항을 맡긴 이상엔 일체의 지시를 삼가며 지켜본다. 그런데 실습을 하는 생도들의 운항키의 움직임이 잘못된 것을 볼 때마다 선장은 입술을 깨물며 참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면 깨문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리기도 한다. 정 다급한 상황에서야 도움을 주겠지만 부하들의 시행착오를 참아내지 못하면 훌륭한 해군으로서의 성장은 물론 나아가 전 해군과 조직의 성장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